



# 양록사업단 녹용 수매개시

- 현금수매 실시, 올 말까지 6만냥 이상 수매될 듯 -

(주)한국양록사업단(단장:이성복)이 녹용 수매를 실시한다.

양록사업단은 올 말까지 총 수매량을 6만냥 이상으로 계획하고 사업단 주주들에게 녹용 수매를 알리는 요지의 공문을 지난 10월15일 발송했다. 이번 녹용 수매는 예년과는 달리 전량 현찰 수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업단 주주를 우선으로 하되 본회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도 수매를 실시할 예정에 있다. 녹용 수매가는 수매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품질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한다.

10월말 기준으로 사업단이 수매한 녹용은 총 1만냥 수준으로 전액 현찰 수매했다. 또한 지난해 수매를 실시한 녹용 미지급액도 전액 정산 처리했다.

사업단 이성복 단장은 “지난해의 경우 녹용을 처리할 방법도 찾지 않은 채 녹용을 수매해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올해는 필요할 때마다 녹용을 현찰 수매, 재고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의 예상 수매량을 6만냥 정도로 내다봤다.

사업단이 올 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녹

용 수매량은 사업단 취급품목인 ‘국선용’의 제조업 허가가 떨어질 경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양록사업단은 동결진공건조 녹용인 ‘국선용’을 생산, 한의업계에 보급키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실험실 등 관련 시설 몇 가지만 확충하면 조만간 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국선용’의 본격적인 생산, 보급이 시작되면 녹용 수매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양록사업단의 녹용 수매계획과 더불어 본회의 불법유통 외산녹용에 대한 활발한 단속 활동이 맞물려 녹용 가격도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최초 사업단이 녹용 수매에 나설 때보다 최근 녹용 도매 가격이 양당 5백원에서 1천원 가량 올랐다”고 밝히고 “외산을 취급하던 사람들이 단속이 심해지자 국산으로 돌아섰고 또한 사업단 녹용 수매 계획이 알려지며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양록인들이 물량을 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양록인사팀**